

문화재청 공고 제2018-22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2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 6. 26.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2건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 (浦項 寶鏡寺 毘盧遮那佛圖)	1폭	대한불교조계종 보경사
2	평양성도 병풍 (平壤城圖 屏風)	1좌 (8폭)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송암미술관)

나.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보물 지정 예고】

□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浦項 寶鏡寺 毘盧遮那佛圖)

- 지정명칭 :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浦項 寶鏡寺 毘盧遮那佛圖)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보경사
-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로 523
- 수량 : 1폭
- 규격 : 천체 291×291.9cm, 화본 278×272.1cm
- 재질 : 삼베 바탕에 홍칠
- 형식 : 선묘화
- 조성연대 : 1742년(영조 18)
- 제작자 : 뇌현(雷現), 밀기(密機), 석잠(碩岑)
- 사유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는 1742년(영조 18) 뇌현(雷現), 밀기(密機), 석잠(碩岑) 등 조선 후기 경북지역에서 활동한 세 명의 불화승이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며 그린 작품이다. 높이와 좌우 폭 모두 3미터에 가까운 대형 삼베 바탕에 붉은 안료를 칠한 뒤 인물과 의복 등을 백색 안료로 그린 선묘불화(線描佛畫)이다. 비단 바탕에 금니(金泥)로 그린 금니선묘불화는 고려 후기에 등장했으나, 삼베에 그린 선묘불화는 조선 16세기에 이르러서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왕실의 금선묘(金線描) 불화에 비해 민중불화의 일종인 삼베 바탕 선묘불화는 18세기에도 지속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그 중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가 대표적 작품이다.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그 주위를 문수·보현보살과 사천왕상 등 권속(眷屬)들이 둥글게 에워싼 원형 구도로서, 이렇듯 비로자나불을 단독의 주존불(主尊佛)로 배치한 불화 중에는 이 작품이 가장 이른 시기에 속한다. 붉은 바탕과 백색의 선묘, 섬세한 필선과 적재적소에 배치된 장식 문양 등이 어우러져 시각적인 오묘함과 조화로우며 돋보이며,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제작 시기와 제작자가 뚜렷하여 조선 후기 비로자나불 도상 및 선묘불화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 평양성도 병풍(平壤城圖 屏風)

- 지정명칭 : 평양성도 병풍(平壤城圖 屏風)
- 소유자(관리자) :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립박물관 송암미술관)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 비류대로 55번길
- 수량 : 1좌(8폭)
- 규격 : 전체 146.5×356.0cm, 각 폭 146.5×44.5cm
- 재질 : 비단에 채색
- 형식 : 병풍
- 조성연대 :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 사유

‘평양성도 병풍’은 조선 후기 번성했던 평양의 모습을 8폭 병풍의 장대한 화면에 화려하고 섬세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평양은 조선 후기 정치·사회문화적,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던 만큼 전도식(全圖式) 읍성도(邑城圖) 중 가장 많이 그려진 소재였다.

평양성의 전체 풍경을 화폭에 집약해서 그린 그림은 1590년(선조 23) 문인 윤두수(尹斗壽, 1531~1601)가 편찬한 『평양지(平壤誌)』의 「평양관부도(平壤官府圖)」에 기초한 도상이 16세기 후반 무렵 갖추어지기 시작하여 18세기 후반에는 전형이 확립되었고, 19세기 이후 크게 유행하였다.

따라서 현존하는 평양성도가 대부분 19세기에 그려진 것에 비해, 이 ‘평양성도 병풍’은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에 소실된 대동강 주변의 애련당(愛蓮堂)과 장대(將臺)가 묘사되어 있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19세기에 유행한 밝고 짙은 청색을 혼용하지 않고 녹색 위주로 처리한 청록산수(靑綠山水)의 표현, 명암이 거의 없는 건물 묘사와 인물이 표현되지 않은 고식적인 화법(畫法) 등을 근거로 제작 시기를 18세기 후반기까지 올려볼 수 있어 현존하는 평양성도 중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작품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평양성도 병풍’은 작품의 규모와 제작 시기, 예술적 완성도, 조선시대 평양에 대한 역사적 위상 반영 등 여러 면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될 뿐 아니라 조선 후기 읍성도 연구에 있어서도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작품이다.

[첨부] 지정예고 사진



<사진1.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



<사진2. 평양성도 병풍>